

투데이 칼럼

19번 국도 '장수 오복의 길' 이야기

19번 국도는 경남 남해와 전남 구례, 전북 남원, 장수, 무주, 충북 영동, 옥천, 보은, 충주, 강원도 원주와 횡성을 지나는 도로이다.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제19호선 원주~홍천선으로 지정된 후 1998년 4월 3일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860미터 구간을 개통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섬진강을 끼고 달리는 19번 국도의 드라이브 길은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소개 된 길이다.

또한 화개장터와 벚꽃축제가 있어 많은 인파를 끌어들이기도 하며, 사계절 맑고 아름답게 흐르는 섬진강 강변 있어 어머니 품처럼 누구든 반겨주는 길이다.

그러나 구례부터 하동까지의 섬진강 길을 제외하면 19번 국도에 대한 의미를 찾기 어려워 이번 장수군이 19번 국도에서 찾고자 하는 '장수 오복의 길'의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일명 '19번 국도 장수 오복의 길'은 장수군을 위해서 아래로 길게 내달리는 국도를 5길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와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1길 번암구간을 자녀를 얻는 복 길 △2길 장수를 수분령휴게소를 취입, 승진, 명예의 길 △3길 계남면 장수C 앞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를 무병장수의 복길 △4길 장계면 금덕제를 돈복의 길 △5길은 계북면 원촌을 사랑의 복길로 이야기를 엮었다.

▲ 첫 번째 복은 '자녀를 얻는 복'이다.

'장수 19번 오복의 길'은 번암면에 들어서면서 시작되는데 번암은 두꺼비 모양의 바위들이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을 지나가면 딱두꺼비 같은 귀한 자식을 얻는 다는 이야기가 있다.

▲ 두 번째 복은 '취업, 승진, 명예 복'이다.

번암을 지나 그대로 국도를 따라 가면 금강의 발원지 뜬봉샘이 있는 수분령 휴게소를 지나는데 이 뜬봉샘은 이성계가 나라를 얻기 위해 백일기도를 했다. 백일계 되는 날 새벽, 골짜기에서 피어오른 무지개를 타고 오색천만

한 봉황이 하늘로 날아가며 "세 나라를 열라"는 계시가 있어 조선을 개국했다고 전해지며, 그 효험이 아직도 샘에 가득해 이곳에서 기도하면 원하던 취입, 승진,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세 번째 복은 '무병장수의 복'이다.

수분령을 지나 장계면에 들어서면 장수C가 나오는데 그곳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라는 멋진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곳에는 장수를 대표하는 건강한 농축산물들이 들어 있다.

건강한 장수 농산물을 먹고 살수 있다면 모두 '무병장수'를 이룰 것이다.

▲ 네 번째 복은 '돈복'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란다. 장계면을 지나 해발 500고지가 넘는 집제에 서서 발 아래 위동 저수

지의 넓은 들과 병풍 같은 산이 멋지게 펼쳐진다.

옛부터 '위동 저수자에 배를 띄우면 부자가 된다'는 전설이 있어, 그만큼 이곳은 풍요로움이 넘쳐 이곳을 지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다.

▲ 다섯 번째 복은 '사랑'이다.

그동안 엄을 복을 다 얻었으니 마지막 복인 사랑만 얻으면 된다. 영원한 사랑을 얻는 길은 19번 국도가 장수를 벗어나기 직전인 계북 원촌마을에 있다.

이곳은 수령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 아래서 사랑을 맹세한 사람은 살아서도 아니 죽어서까지 그 사랑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연인과 함께 이곳에서 소박한 사랑의 언약식을 해봐도 좋겠다.

그동안 19번 국도에서 섬진강과 벚꽃 길로만 떠올랐다면 장수 19번 국도에서 만나는 오복의 길은 무척 신선하게 느껴질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장수 19번 국도에서 연인과 가족 또는 혼자서라도 둘러 오복의 의미와 도로변을 끼고 곳곳에 있는 명소를 찾아 여유도 즐기고 더불어 오복을 누리시길 바란다.



박 현 식 장수군 기획조정실장

독자제언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CPR)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서구적인 생활습관의 확대에 따라 급성심장사 발생 건수는 연간 2만~2만 5000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 혹은 사고 등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들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조치를 심폐소생술, 즉 CPR이라고 한다.

호흡이 정지한 환자에게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완전회복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손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인 4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에 대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지만, 직접 실시해보거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의식 확인, 119신고요청, 흉부압박,

기도확보 및 인공호흡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여부를 살펴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119에 심정지 환자가 있음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으로 반복해 실시하는데 119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실시한다.

이때 가슴압박 부위는 양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에 손을 깎지 낀 채로 대고 팔과 환자의 각도가 수직이 되게끔 손바닥 아래 부분으로 압박하며 실시하는데 분당100회 정도의 속도로 5cm가량 깊이로 강하게 눌러 준다.

위급상황 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내 가족, 내 이웃의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을 잘 기억하자.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자전거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연결됩니다

자전거는 이용의 편리성, 건강 증진 등을 이유로 아이에서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부주의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히 안전운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계에 의하면 겨울이 지나고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3월부터 자전거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7%가 머리손상이 원인이며, 사망자의 88.6%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좌우측 통행차량에 주의하면서 건너야 한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시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결국,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이용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이용자의 안전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달릴 것이다.

정태철순창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사위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 문제 현안에 시선 집중해야

전북도는 문제 현안에 시선을 집중해야겠다. 군산 GM 폐쇄와 남원 서남대의 폐교로 지역 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실제 피해자들은 풀이 죽음대로 죽어 있다. 도대체 되는 게 없는 형국이다. 지방 선거가 코앞이지만 전북도는 관심사를 하나로 집중해야겠다. 해결 해야 할 현안에 우선적으로 시선을 주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바,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낱알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되는지 유감이다. 전북도는 제 몫을 챙김에 있어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다른 광역 시도들과 비교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역적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 몫을 온전히 챙겨야 한다. 향토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여러 번 말했다. 전북도는 제 몫을 챙기는 강단을 보여야 한다.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전북도는 지금 해결이 다급한 현안 쪽에 시선을 집중해 마땅하다.

이쪽은 그렇지 않다. 전북도는 그 이유를 인식해야 한다. 도내 거주 인구 현황을 보면 매우 답답하다. 전주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다른 시군은 인구가 하릴없이 줄고 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상이 미미한 탓이다. 지역이 보다 발전하지 않는다면 전북 인구 2백만은 헛된 자존심이고 헛된 희망사항일 뿐이다. 도민들이 매년 안타까워하고 있거니와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의 예산과 기업들의 투자를 더 이끌어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관계자들은 문제 현안에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는 살려 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답이 없다. 살릴지 포기할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서 코끼리 비스켓 수준의 긴급 지원금을 내놓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때 판단력 좋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 고장의 낙후와 관련하여 도민들은 마음 고생이 심하다. 전북도는 제 몫을 챙기는 강단을 보여야 한다.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전북도는 지금 해결이 다급한 현안 쪽에 시선을 집중해 마땅하다.

다른 광역 지자체 지역은 인구가 불어나거나 유지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기업들도 협조해야

노인 일자리가 아쉬운 요즘이다. 일하고픈 노인이 많은데도 일자리가 적은 까닭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도가 시기 적절하게도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기 위해 813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다. 어떤 이들은 짧은이의 일자리도 부족한 판에 노인 일자리까지 신경쓰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정신 태도가 아니다. 상노인이 되면 몰라도 60대들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 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문제이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많은 이들이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이다. 그들 중에는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도 있다. 노인 실업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있다면 살림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여생을 준비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자체도 그만큼 복지 수혜에 대한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전북 지역에 노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인 일자리 마련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외면한 기업들이 많은 탓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역에 기대한 만큼의 노인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대다수는 시간제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소망스럽다.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 일자리는 좀 그렇다. 출근과 퇴근을 위한 교통비가 아쉬울 정도라는 호소는 그래서였을 터이다.

기업들이 노인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줘야겠다. 저번에 약속한 일자리가 실상은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쳤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 정말이지 그러서는 곤란하다.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알량한 일자리를 조금 내놓고서 협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업들은 고용 비용 절감에만 신경 쓰면 안 된다. 노인들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지탱해 한 경력이 풍부하다. 노인 일자리 마련에 기업들이 다들 협조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